

# 디지털 시대... 종이사전 갈 곳을 잃다

(辭典)



광주 총장서점 사전코너. 졸업과 입학 선물을 위한 종이사전 수요가 가장 많은 2월이지만, 찾는 이가 없어 한산하기만 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는 박모(14·광주시 동구 운림동)양은 공부를 할 때 휴대전화를 옆에 둔다. 모르는 영어 단어나 한자가 나오면 '메뉴→편리기능→영한사전(한자사전)'을 차례로 누른다. 휴대전화에 나오지 않은 단어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나 '엠파스'(www.empas.com)의 사전검색을 찾는다.

박양이 디지털 사전을 이용하게 된 것은 기존 사전의 한계 때문. 중학생용 영어사전엔 학원에서 '선행학습'으로 배우는 토플교재에 나오는 중요 단어가 누락된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종이 사전(辭典)이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휴대 및 이용이 상대적으로 편리한 전자 사전, 인터넷 사전, CD 사전 등 이른바 디지털 사전에 밀려서다.

## 전자사전·휴대폰·인터넷에 밀려

종이 사전의 경우 무리한 힘을 가하면 찢어질 듯한 얇은 종이를 한 장 한 장 넘겨야 겨우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 마우스 클릭이나 버튼 터치 한 번으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신속히 찾는 데 익숙해진 요즘 학생이나 젊은이들에게는 영변거로운 일이다. 종이 사전은 또 찾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단어 하나 찾는 데도 5~10분이 걸린다. 광주지역 중학

교에서 전자사전을 들고다니는 학생은 반마다 2~3명 되지 만, 종이 사전을 갖고 다니는 학생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광주 모 중학교 국어교사인 이모씨는 "수업시간에 학생 4명에게 사전을 한 개를 주고 단어 10개를 찾으라 했더니 1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 교사는 "학생용 종이 사전을 갖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없고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사전 이용법을 모른다"고 덧붙였다.

## 중학생 대부분 사전 찾는법 몰라

'옛센스 사전' 시리즈를 발간하는 국내 대표적인 종이 사전 출판법인 민중서림의 매출 역시 같은 기간 20~30%가량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주시내 일선 학교들도 학생들의 취향 변화에 맞춰 3~4년 전부터 각종 상 수상자에 대한 상품으로 종이 사전 대신 문화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 각 포털사이트에서

5~6년 전부터 무료 제공 중인 인터넷 사전은 방대한 어휘 수록과 유사어 검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앞세워 종이 사전을 급속히 대체해가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백과사전 및 국어·영어사전 서비스를 시작하며 국내 인터넷 사전 서비스를 주도하고 있는 네이버 자체조사 결과, 지난해 일 평균 사전 이용건수는 무려 814만 건에 달하고 있다.

종이 사전 기피 현상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많은 학생이 디지털 사전을 통해 즉흥적으로 단어를 검색하다 보니 언어의 정확한 뜻이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해 창의적인 사고나 다양한 어휘사용에 한계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 다양한 어휘 접할 기회 잃기도

광주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최윤길 장학담당 장학관은 "학생들이 종이 사전을 이용할 경우 언어에 대한 소중함과 정확한 이용은 물론 독서 습관의 생활화 등의 교육효과가 기대된다"며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학습태도를 길러줄 수 있도록 종이 사전 이용을 적극 권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 나원침 (7045) 김중두



광주광역시 중구... 367-9000

## '법조비리' 前 부장판사 무죄

### 청탁대가 경찰관도

### 서울중앙지법 선고

법조브로커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향응과 수천만원의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장판사와 경찰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는 2일 김씨로부터 재판부에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향응과 1천만원의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법재판연구관 출신 김모 전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홍수씨는 사건당사자 형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의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나 김씨가 그 형으로부터 송금받기 전 계좌에는 21만원밖에 없었고 이후 859만원을 쓴 것으로 미뤄 김씨가 보석 사건을 핑계로 1천만원을 받아 자신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도 김씨에게 박모씨의 지명수배 조회 결과를 알려주고 박씨와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이모 경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 총경급 간부 음주 단속 현장 체험

1일 밤 8시 광주시 서구 삼동동 5·18기념재단 앞 왕복 4차선 도로에서 김철성 전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오른쪽)과 박동남 영광서장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날 기념재단 앞에서는 김철성 과장 등 5명의 총경이 1시간 동안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실시한 '총경급 간부 음주단속 현장체험'은 기념재단 앞을 비롯해 모두 3곳에서 진행됐으며 15명의 총경이 참가했다. 정봉채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6명은 710전경대를 방문해 '기동대 현장체험'을 했고, 하태욱 광주 서부서장 등 16명은 '지구대 현장체험'을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입춘 길목 광주·전남 '포근'

봄 기운이 성큼 앞으로 다가왔다. 봄이 오는 길목인 입춘(立春)을 앞두고 광주·전남은 낮 기온이 최고 10도까지 올라가는 등 따뜻한 주말과 휴일이 될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3일은 구름이 조금 끼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된다"면서 "아침에는 영하권에 머물러 다소 쌀쌀하지만, 찬 대륙고기압 세력이 많이 약해져 낮에는 따뜻하겠다"고 2일 밝혔다.

3일 지역별 아침 기온은 곡성·순천

영하 7도, 구례 영하 6도, 나주 영하 5도, 광주 영하 4도 등이다. 낮은 광주가 영상 8도까지 오르고, 전남은 영상 7~10도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입춘이자 휴일인 4일엔 추위가 더 누그러진다. 4일 광주 아침 기온은 영하 1도까지 오르면, 전남도 영하 5도~영하 2도로 전날보다 더 따뜻하다. 낮엔 광주 10도, 전남 9~11도로 평년(낮 최고 4도)보다 약 2~3배 더 높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 "맹순이·말녀... 별난 제 이름 바꿔 주세요"

광주지법, 지난해 改名 건수 4,354건

하루 16~20건 신청... 허가율은 감소

'별난(?) 이름'을 고치기 위한 개명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2일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명 건수는 모두 4천354건으로 2005년 2천909건에 비해 49.6% 증가했다. 하루 평균 16~20건이 접수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5년 11월 대법원이 '법외연가법제 폐지 회피 등의 의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개명 신청은 점례·점순·맹순·말녀·개동과 같이 '이름이 촌스럽다'거나 성·광·정자 등 '발음 식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 그 반대의 경우도 단골이었다. 하지만 개명 허가율은 2004년

83.8%, 2005년 77.4%, 지난해 73.6%로 계속 줄고 있다. 광주지법이 개명을 허가하는 대상은 ▲이름이 놀림의 대상이 될 경우 ▲호적과 실제 통칭명을 일치시키기 위한 경우 ▲친족 중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있는 경우 ▲발음이 어려운 이름 ▲한글을 한자로 전환 등이다. 사주 등을 이유로 철학상 개명하려는 사람은 비과학적이라는 이유로 대부분 개명이 허용되지 않는다. 출생신고 당시의 한자가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개명이 불허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석면제품 사용 2009년부터 금지

모든 석면제품의 제조, 수입 및 사용이 2009년부터 금지되고 석면 해체·제거 업체 등록제가 도입된다. 노동부는 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석면관리대책을 발표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금지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석면 관리대책에 따르면 석면 가스켓이나 석면 방직제품, 석면 전기제품 등에 대해 제품별로 대체가능성을 고려해 200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석면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한 뒤 2009년부터 석면 사용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 '발기부전 위험'

20세 이상 미국 남성의 약 18%가 발기부전이며 이는 몸을 움직이지 않는 생활습관과 강력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의 과대학 역학교수 엘리자베스 셀빈 박사는 '의학 저널'(Journal of Medicine)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미국의 전체 인구 계층을 대표하는 전국건강-영양조사 참가남성 2천12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TV를 하루 3시간 이상 보는 남성이 시청 시간이 1시간 미만인 남성에 비해 발기부전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셀빈 박사는 또 당뇨병 환자의 절반이 발기부전이었다고 발기부전 남성의 거의 90%가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지니고 있었다고 밝히고 이는 결국 체중을 줄이고 운동하는 등 생활습관의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발기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황형협의 사진작가 美 인도 필판

○미국에서 황형협의로 기소됐다. 그가 국내로 도주한 60대 사진작가가 미국에 인도될 처지.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서울고검이 청구한 황모(69)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사건에 대해 최근 인도 결정을 내린 것.

○황씨는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투자자문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다 26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1990년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같은 해 말 국내로 도피.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요청에 따라 서울고검이 청구한 범죄인 인도심사에서 인도결정이 최근 내려졌으며 곧 신병을 남미 예경"이라고 말했는데,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간 황씨는 귀국 후에도 활발한 작품활동을 벌였다고.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 죽은사람 퍼블리시티권

## 후손들 권리 보호는 50년

사자(死者)에 대한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은 인정되며 후손이 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년이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석)는 고(故) 이효석 선생의 장녀인 이모(75)씨가 "아버지의 초상이 들어간 상품권이 성인오락실 경품용으로 사용돼 아버지의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상품권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 ▲퍼블리시티권(publicity權)=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肖像)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미지나 목소리 같은 것도 포함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재판부는 "술진 사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을 수 있고 후손이 상속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은 50년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이 사건의 경우는 이효석 사망 후 62년이 지났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을 독립적 권리로 보호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방앗간 일손 돕던 중학생 손목 잘려

설 명절을 맞아 바빠진 방앗간의 일손을 돕던 중학생이 기계에 팔이 끼여 손목을 잘라냈다.

지난 1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1방앗간에서 중학생 기모(15)군이 떡 찌는 기계에 오른쪽 팔이 끼었다.

신고를 받고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기군은 오른쪽 팔은 손목 뒷부분까지 기계에 빨려들어가는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으며, 기계에서 뽑아낸 증기(蒸氣)로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119구급대는 방앗간기계 업체 관

날씨 2월 3일 (음 12월 16일) 전국날씨. Includes a map of Korea with weather icons and a table for the week's weather.